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청와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정책실장 김민영 : 723-5056)
제 목 시민과 대통령을 연결하는 '개혁핫라인' - 개혁통신 첫호 발송
날 짜 1998. 9. 17. (총 7쪽)

보 도 자 료

시민과 대통령을 잇는 핫라인 '개혁통신' 첫호 청와대에 발송

- 각료 및 청와대비서진을 개혁진용으로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과
차남 홍업씨 강남사무실문제에 엄격해야한다는 시민의 쓴소리 등 담겨

1. 참여연대는 9월10일 '시민과 대통령을 잇는 개혁핫라인'을 개설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에 이어 9월17일 핫라인 역할을 대신할 '개혁통신' 첫호를 청와대 김대중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2. 참여연대가 청와대에 '핫라인' 개설을 요청하고 그 대체로서 '개혁통신'을 발송하게 된 것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대중대통령께 이러한 민심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 앞으로 청와대와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 사이에 핫라인 역할을 하게될 '개혁통신'은 매주 1회 이상 청와대 김대중대통령 앞으로 발송될 계획이며, 대통령께 전달되는 공식적 보고서에서는 담을 수 없는 일반 시민들의 절절한 사연들과 요구, 비판적 여론, 개혁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여과없이 전달할 것이다.
4. 개혁통신 첫호에는 지지부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를 완전 개편하자는 주장과 차남 홍업씨의 강남사무실문제에 엄격해야 한다는 시민의 쓴소리 등이 담겨있다.

▣ 별 첨 : 개혁통신 1호